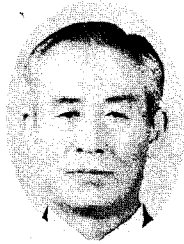


安保次元에서 본 畜産政策



유 윤 수

(한국축산단체연합회장)

국민소득이 1,000 \$에 이르자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도 훨씬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는 흔히 이를 급격한 증가니 또는 폭발적인 증가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다. 이제 쇠고기는 78년에 지육으로 7만여톤을 수입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소요외화액도 1억 \$을 넘게 되었다. 77년 까지만 해도 일본에 수출하던 돼지고기도 수입하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양고기, 버터, 치즈 등은 수입 한도량이 철폐되었고 분유까지도 수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축산업계의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오직 양계산물(계란 및 닭고기)만이 자급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며 양계인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축산물도 국제시세와 비교하여 (C & F) 1.5배가 넘으면 수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주

종이 가격정책이며 물가야 말로 국민개인의 실질소득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임을 생각할때 올바른 가격정책은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본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축산물에 대하여 지나친 낮은 가격정책으로 생산의욕을 감퇴하게 하여 많은 수량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高米價 정책이 주곡의 자립을 가져왔고 수입에 의존하는 면화, 소맥, 대두등은 이제 국내재배를 거의 보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아왔다.

• 정부의 축산물가격 정책

정부의 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한 물가정책을 보면

1. 수입육을 무제한 방출하여 부족한 국

表1 국제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의 국내, 국제가격비교

품 목	국내가격	국제가격	국내국제 가격비교
쇠 고 기	3,776,510	685,305	5.5배
쇠고기부산물	2,000,000	610,000	3.3
소 맥	82,000	24,690	3.3
대 맥	246,667	56,115	4.4
땅 콩	1,175,155	432,620	2.7
참 깨	1,778,680	425,620	4.2
옥수수	123,190	57,170	2.1
대 두	334,650	129,495	2.6
치즈	4,200,000	1,619,900	2.6
분유	2,450,000	377,330	6.5

산쇠고기를 대체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육 판매차액을 가축사육기반의 조성에 투자하며

2. 쇠고기 편중의 소비를 지양하고 기타 육류의 소비를 적극 권장하며

3. 가축개량사업과 방역대책 등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4. 축산물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안정대의 계속적 발전과 상시 비축제도를 확립하는 등으로 정부가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산인이 정부의 가격안정정책은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의 축산물가격이 과연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정가격인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가격안정대는 있으나 근자 비육우 사업이 수지를 맞추지 못하여 소를 팔기 위해 내놓은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이 없어 소값은 떨어지고 있으며 낙농업도 적자로 우유소가 고기소로 도살되고 있다는 말도

있다. 이런 예로서 수지가 맞지 않으면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국제경쟁력과 축산

100억불 수출과 국민 1인당 G N P가 1,000\$을 넘어서자 우리 주위에서 국제 경쟁력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즉 모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수입을 점차로 개방하고,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쇠고기 같은 품목은 국내생산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 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여 이제는 상위중진국대열에 선것은 사실이나 그 반면에 물가불안과 인플레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물가상승을 농산물이 주도하고 특히 축산물 수요의 급증은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인 것이다. 또 세계각국이 석유파동이후 자원전쟁시대가 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선진국들도 새로운 보호주의 무역을 지향하고 있어 우리나라 상품을 팔기 위해 우리는 어차피 축산물을 수입해야 되는 입장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축산의 주종인 한우나 낙농의 경우의 전체 축산인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정부가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하여도 생산조건이 우리와는 현저히 다른 호주나 뉴질랜드와 가격경쟁을 할 수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닭과 돼지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므로써 어느정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단백질 사료나 장류사료는 국내부존자원의 활용이라는 명

분으로 사료품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사료 가격의 통제로 사료효율은 나빠지고 생산비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값이 오르면 수입하고 물량이 부족하면 수입하고, 국제경쟁력이 없으면 수입한다는 말은 국내에서 축산물 생산을 포기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끝까지 보호해야 될 축산업.

우리는 많은 선진국들의 농업정책에서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고 축산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국내자급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 이유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일반 공산품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식료품없이는 굶어죽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위정자가 의식주생활 중 식량의 수급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일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식량인 축산물의 수급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지 않고 우선 손쉬운 수입에 의존하므로서 국내생산기반이 무너뜨려질 경우 「물고기 한마리를 주면 그것으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으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것으로 일생동안 먹고 살 수 있다」는 유태인의 격언을 굳이 상기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소빨을 고치려다소를 잡게되 지나 않을지 걱정이 된다.

값싼 부로일러의 불란서 상륙을 막으려는 미국과 불란서의 닭고기 전쟁은 너무도 유명하며 같은 EC회원국으로 (회원국간에 관세장벽이 없음) 불란서는 이태리의 값싼 포도주가 불란서에 넘어 오는 것을 막아 불란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므로써 이태리가 EC 현장 위배이며, 자유무역 침

해로 제조하여 세칭 포도주전쟁을 벌인 일이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그 엄청난 무역수지 역조의 시정을 위해 쇠고기를 대량수입 하라는 미국과 호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축산보호를 위해 제한된 수량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양잠의 경우 키테량을 규제하여 일본의 양잠농가를 보호하므로써 그 여파로 우리나라 양잠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회현동의 무역회관 대강당에서 국내 잠사인들이 일본에 대한 배신을 규탄하는 켈기대회까지 한 기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물론 일본 국내의 생산값이 국제시세보다 월등히 비싸 일본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고 비싼 실크옷을 입으면서도 자국농가보호를 위해서 꼭 참고 견디는 형편이다. 이들은 농촌을 보호하므로써 안정된 식생활을 할 수 있고 농촌의 구매력증가로 일반 공산품 판매량도 증가하여 결국은 도시소비자에게 그 이익이 되돌아오며 국내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이 78년도에는 빼지고기의 경우 거의 자급의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불건을 팔기 위하여 또는 국내 쇠고기값이 좀 비싸다고 계속 쇠고기를 대량 수입할 경우 외국의 축산물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국내 가격보다 비싸질 경우에도 물량확보를 위하여 계속 수입할 수 밖에 없으며, 요즈음 같이 국제정세가 미묘한 때 어떤 사정으로 쇠고기를 계속 수입치 못 할경우의 혼란도 예상하여야 하며, 우리는 더 큰 가격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축산업은 한번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며 특히 대가축의 경우에는 더욱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많은 나라들이 축산물의 자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막의 나라 중동지역 산유국들까지도 축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농가의 제 2 단계 소득증대가 축산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도 명백하다. EC의 주요쟁점이 각국의 농축산물 생산량조정이며 세칭 동경라운드의 10개항에도 쇠고기 및 낙농제품의 무역에 있어서 수입국생산기반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을 보아도 어느 나라이든 축산물수입은 단순한 가격정책차원을 넘어 안보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축산물의 자급은 과연 불가능한가 ?

한국영양사료 연구회가 한국사료협회의 용역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의 장기 수요를 추정한 것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또한 이 보고서는 1991년에 가셔도 쇠고기의 자급율은 74%에 머물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86,840톤 (정육)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78년도 보다도 거의 배에 가까운 쇠고기를 수입해야 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다음표에서 느껴지는 것은 현재 정부의 지나친 저쇠고기가격 정책은 쇠고기 소비편종을 유도하게 되므로 전체 육류중 쇠고기의 비율이 76년 30.4%에서 37.4%로 증가하게 되며 국내자급이 가능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가 크게 감퇴한다는 사실이다.

이 표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양돈, 양계의 성장을 억제하고 수입쇠고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를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는 자연적인 추세예측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 질수 있으며 또한 바뀌어 지기를 바라고 있다. 일시적으

表 2. 축산물의 장기수요 추정

	1976		1991	
		%		%
소 고 기	76,000	30.4	334,000	37.4
돼지고기	114,000	45.6	349,000	39.2
닭 고 기	60,000	24	209,000	23.4
합 계	250,000	100	892,000	100
계 란	3,048 백만		8,631백만	

로 값이 오른다고 수입할 경우 영원히 자급의길은 멀어지게 마련이다. 일시적 가격상승은 조금만 소비자가 참고 견디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비를 줄이며 국내에서 자급이 가능한 육류로 대체할 경우 국내 자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것이 곧 농가 소득증대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줄이며 고용효과를 가져와 국민총화에도 이바지 하게 되는 것이다.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을 볼때 승용차와 냉장고, T.V 등 전자제품과 철강, 시계 등섬유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이 국제시세보다도 월등히 높음에도 정부에서는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축산업이 충분한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된다.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국제 쇠고기 값이 2년사이에 3 배이상 올랐다고 하며 앞으로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추측되어 쇠고기의 무제한 수입은 더 큰 불가고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양축농가는 수입쇠고기의 무제한 방출로 생산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적 예측은 그 나라의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며 나아가서 축산물의 대량수입은 우리나라의 축산식민지화를 면치 못하게 하므로서 그 어느때 보라도 축산물자급이 요청되고 있는 시기라고 확신하는 바이다.